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11. 24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1/17~11/21)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에도 높아진 외환당국 경계감 반영하며 소폭 상승 출발. 이어 일본 신정부의 재정 건전성 불안 속 엔화 약세가 달러 강세 자극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된 영향 더해지면서 1,460원대로 상승
- 중반, 당국 개입 경계심리 이어지고 있음에도 AI 고평가 논란으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와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매도세에 소폭 상승
- 후반, 엔화 약세와 매파적인 FOMC 의사록 여파로 달러인덱스가 100을 상회, 강달러 반영하며 1,470원선에 근접. 이어 주 후반, 미 기술주 급락 속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이탈 가속화에 엔화 약세 심화된 가운데 지난 4월 이후 최고 수준인 1,475.6원에 정규장 종가 기록

달러/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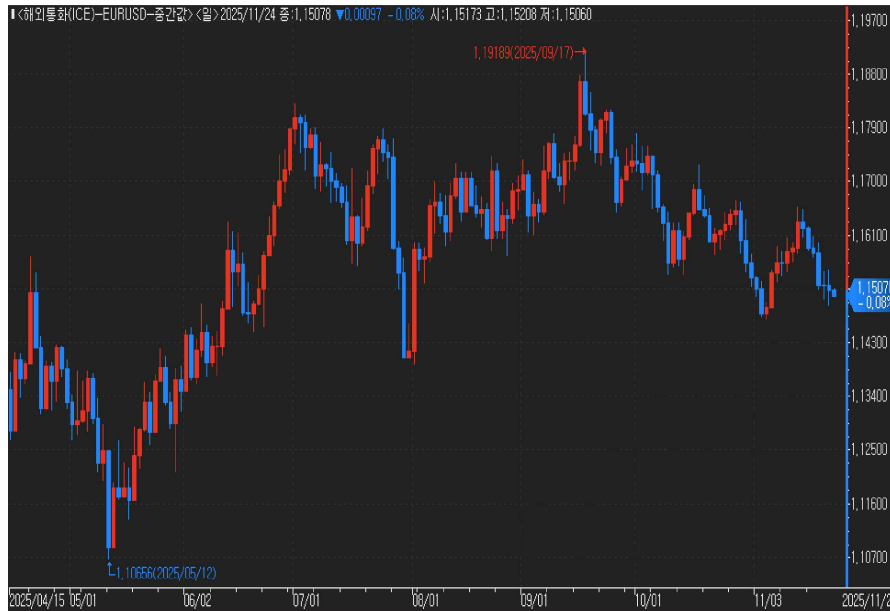
- 금주 달러원 환율은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재유입에도 수급 영향에 하방 경직 흐름 보일 전망
- 연준 주요 인사인 뉴욕 연은 총재가 12월 금리 조정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놓자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전망이 다시 우위를 점한 모습. 이에 달러 강세 흐름이 다소 진정됨에 따라 환율은 하락 압력 받을 것으로 예상
- 또한, 금주 예정된 11월 금통위에서 부동산 불안과 고환율 등에 매파 성향 보일 가능성 높아진 점도 원화 가치를 지지할 요인으로 판단
- 그럼에도 수출기업들의 달러 매도 지연, 수입업체 결제수요 및 기업들의 대미투자 환전 수요 등 수급상 매수 우위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51.0	1,476.0	1,451.0	1,475.6	+24.6

예상거래범위

1,460원 ~ 1,48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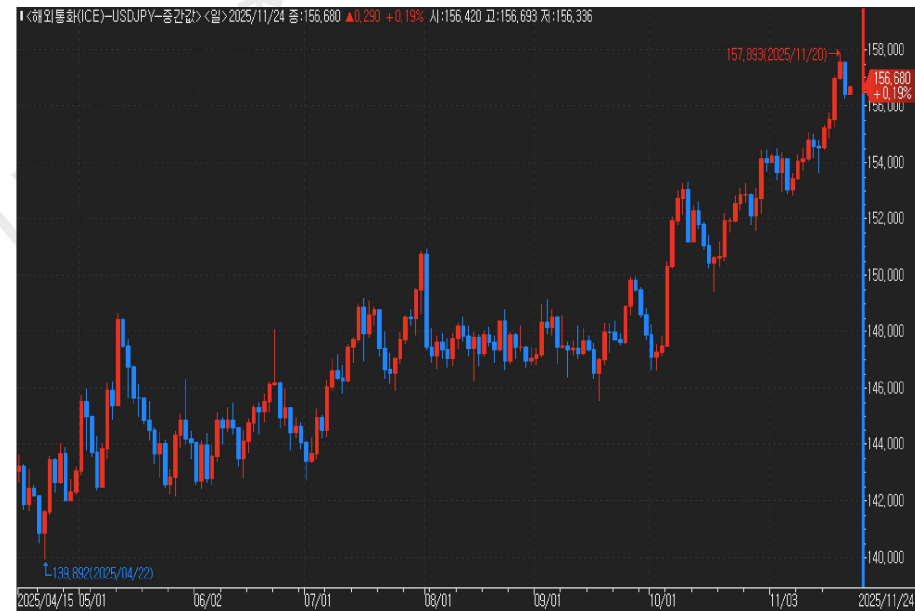
유로·엔화 동향 (11/17~11/21)



유로화 동향

- 주초, 금융시장의 취약성과 미 관세의 부정적 영향 등 유로존 경제 리스크에 대해 언급한 ECB 부총재의 발언에 유로화는 1.15달러대로 하락 출발. 이어 AI 거품론과 미 민간고용 부진 등에 글로벌 금융시장 내 위험회피 분위기 짙어진 영향으로 약세 흐름 지속
- 중반, 예상보다 매파적인 FOMC 의사록에 연준 12월 금리동결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자 달러 대비 큰 폭 약세
- 후반, 독일 10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1%로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일본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 속 엔화 약세가 견인한 강달러 영향 반영되며 약보합. 이어 주 후반, 유로존 11월 제조업 PMI가 전월대비 0.3p 하락한 49.7을 기록하며 위축세로 전환되었다는 소식에 약세 폭 확대, 1.15달러 초반대로 하락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621	1.1625	1.1491	1.1518	-0.0103



엔화 동향

- 주초, 일본은행 금리인상 지연 우려 속에 다카이치 일 총리와 우에다 BOJ 총재의 공식 회담을 앞두고 경계심리 강화되면서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통화정책 측면에서 정부의 경기 부양 기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추가 약세
- 중반, 일본 내 재정 불안 지속되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국과의 외교 갈등까지 고조되자 엔화 가치 급락하며 157엔선에 근접
- 후반, 일본 당국자들의 구두개입성 발언 이어졌으나, 연준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따른 달러 강세에 약세 흐름 이어짐. 이어 주 후반, 일본 정부의 재정 부양책 발표 이후 약세폭 일부 되돌린 가운데 뉴욕 연은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달러 대비 강세 보이며 156엔대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4.5	157.9	154.4	156.4	+1.9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1/17~11/21)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지난주 당국 구두 개입에 따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수준이 저향선으로 인식되며 국고채 시장 저가 매수 유입 영향 등으로 하락 출발 이어, 글로벌 증시와 가상자산 시장 등에서의 위험자산 가격 조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부각 등이 반영되면서 하락 추세 지속
- 중반, 한은 매패 성향에 의한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며 매수 심리 부진 속에 국고채 금리는 혼조 흐름
- 후반 들어, 뉴욕금융시장에서 기술주의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호실적 소식 등이 위험 선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고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 여기에 외국인도 기준물 국채 선물에 대해 순매도를 확대한 점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상승 추세가 유지된 국면. 이어 주 후반, 뉴욕 금융시장 시고점론 등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위축 영향 속 외국인투자자의 10년 국채선물 순매수 규모 확대 영향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지표로 확인된 가운데 버핏의 기술주 대거 매수 소식 등이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 출발. 이어,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우려와 시 버블 논란 재점화 영향에 코스피는 3% 넘게 하락하며 4,000선 하회
- 중반 들어서도 시 고평가 논란이 가시지 않으며 시장 투자심리를 무겁게 질누른 가운데 미국 경기 부진 우려마저 겹쳐지며 하락 추세 지속
- 후반 들어, 개장전 발표된 엔비디아의 역대 최대 실적 발표 소식이 투자심리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사흘 만에 4,000선 회복 시현. 이어 주 후반, 글로벌 증시 고평가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강화가 재차 확대되면서 코스피 크게 하락 마감